



(...10페이지에 이어) 기 때문에 무보수로 헌신하겠다고, 대륙군의 병졸로도 참전하고 싶다고. 대륙회의는 마음을 바꿔 라파에트를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1732~1799)에게 보냈다.

미국의 독립에 기여하다

1777년 7월 라파에트는 워싱턴을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다. 워싱턴은 라파에트의 품격 있는 행동과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를 좋아했다. 그는 훗날 라파에트를 소장 임명하고 참모로 기용했다. 파격적 대우였다. 여기에는 라파에트를 이용해 프랑스 내에서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우

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프랑스의 참전을 끌어내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선택은 탁월했다. 라파에트는 워싱턴의 애정과 결정에 부응했다. 전쟁터에서는 부상을 견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 포지 계곡(Valley Forge)의 겨울 숙영지에서는 대륙군 병사들과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뎌냈다. 평생을 호의호식했던 프랑스의 대귀족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라파에트는 군말 없이 병사들과 동고동락했다. 일선 지휘관으로서 능력도 점차 향상돼 여러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활약상은 약간 과장돼 프랑스로 전해졌고,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젊은 귀족과 장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오랜 전략적 고민 끝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참전했다(1778년 2월).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주장을 숙적 영국에 복수해야 한다는 감정적 이유가 압도한 탓이다. 그러나 선발대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프랑스 원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1779년 말, 라파에트는 프랑스로 달려갔다. 당대 최강을 자랑하는 영국군을 이기는 데 필요한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함대,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라파에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 왕의 명을 거역하고 떠났던 밀항자는 베르사유 궁정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다. 특히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는 직접 그를 만나 미국과 독립전쟁에 관한 얘기 듣기를 즐겼다. 라파에트 파견은 워싱턴에게 '신의 한 수'로 드러났다. 그가 프랑스 대신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움직여 최정에 부대 6000명과 더 많은 함대의 원조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원정군의 지휘는 로상보 백작(comte de Rochambeau·1725~1807)이 맡았

▲ 프랑스 귀족 라파에트 후자가 군복 차림의 조지 워싱턴과 그의 사저 마운트버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의기 투합했고, 둘의 우정은 미국이 프랑스 도움을 받아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니 오거스타 브라운스콧 작(미국 라파에트 대학 소장).

다. 라파에트와 로상보는 워싱턴을 도와 영국군과 싸웠다. 특히 두 사람은 미국 독립전쟁 최후 전투인 요크타운 공성전에서 워싱턴의 군대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1781년 10월 19일).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기억한다

라파에트는 그렇게 미국의 독립에 헌신했고,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상징이 됐다. 미국은 백악관 앞에 조성한 공원에 그의 이름을 붙였고, 그의 동상을 세웠다. 동상을 자세히 보면 높은 기단 위의 라파에트는 백악관을 바라보며 빈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다. 기단 아래서는 한 여인이 라파에트를 향해 검(劍)을 든 손을 뻗고 있다. 검은 장차 미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할 라파에트의 빈손에 쥐어질 운명을 나타내는 듯했다.

독립전쟁을 벌일 당시 미국은 국가가 커녕 식민지 연합체에 불과했다. 반면에 프

랑스는 영국에 견줄 만한 강대국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처지도 바뀌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고, 프랑스는 제국의 지위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프랑스 도움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워싱턴의 라파에트 광장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수십 곳의 '라파에트' 이름을 딴 시와 타운,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동상 등이 그 증거다. 라파에트 기념일을 제정해놓고 있는 주(州)도 여럿이다. 9·11 테러 희생자는 물론이고 240년 전에 미국의 독립과 자유라는 대의에 헌신한 외국인들도 잊지 않는 미국. 여러모로 이 나라는 기억의 제국이다.

[프랑스 백작·프로이센 남작·폴란드 장군도... 라파에트 공원에 동상]

라파에트 공원을 장식한 외국인인 라파에트 후자만이 아니다. 프랑스군 사령

관 로상보 백작, 프로이센 출신 훈련 교관 슈토이벤 남작(Baron von Steuben), 폴란드 출신 공병 장군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Tadeusz Kosciuszko) 세 사람도 공원 한 모퉁이씩을 차지하고 있다.

슈토이벤 남작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대륙군을 훈련해 정예 군대로 변모시켰다. 탁월한 공병 장교였던 코시치우슈코는 주변 강대국들에 나라를 잃은 폴란드 군인이었다. 폴란드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코시치우슈코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무작정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그는 새러토가 전투(1777년 10월)와 전략적 요충지인 웨스트포인트—오늘날 미 육군사관학교 위치—방어에 큰 공을 세웠다.

자국민의 헌신은 애국(愛國)이지만, 라파에트를 비롯한 타국민의 헌신은 은혜다.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애국과 은혜를 기억하고 추앙한다.





가 자 여 행 사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 핵시 서유럽 6박 7일
- 이태리 일주 7박 8일
-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 동유럽 7박 8일
- 발칸 일주 11박 12일
-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미서부 투어 상품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 엘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